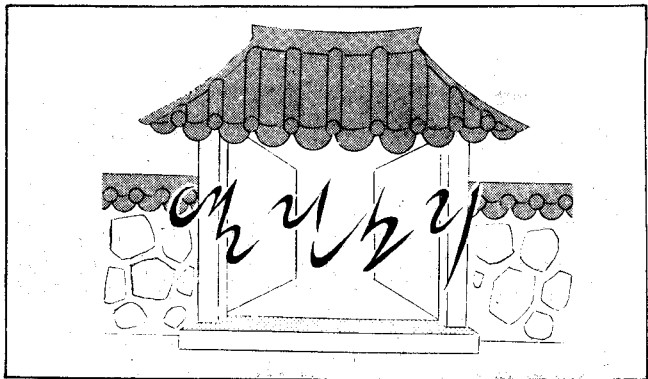




무관심한 단체장선거 정당한 권리 행사해야

올해도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해 학내 여러 단체장 선거가 있다. 이것은 우리학교 학우들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 외에도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학우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중앙대자보판이나 중앙도서관 등에서는 총학생회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런데 학우들은 이것도 애써 무시하려는 것 같다. 유세 전단을 받았으면 최소한 한번이라도 읽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땅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학우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돈 한푼 나오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쌀쌀해 지는 요즘에도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나누어 준다. 우리 학우들은 이점을 잊어서 안된다.

100퍼센트 투표율은 아닐지라도 대학내에서의 투표율은 일반 선거 투표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재 선거가 끝난 정경대, 문리대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단체 입구의 투표함 앞에서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젠 선거 관리원이 호객장이 된 느낌이다. 제발 투표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애처로움마저 느껴진다.

한총련의 몰락과 맞물려 총학생회의 위상이 예전만 못 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회는 학생운동만 하는 단체가 아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은 우리 학우들의

대표이고 학우들에 대한 봉사자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학우들의 애정을 배풀기 위해서라도 학생회 대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김태균
(회계 3)

분리수거 제대로 안돼 의식의 변화 필요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분리수거에 열을 올리고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들어온 지 꽤 지난 지금에도 분리수거는 아직까지 우리들 몸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학교 내에도 분리수거함이 꽤 있지만 길로 봐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듯 보이는 함도 여러개이고, 학생들도 제대로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어 도대체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의식 중에 분리수거를 몸에 익히는 것이다. 마치 버릇처럼 말이다. 야쿠르트를 마시고 뚜껑은 알루미늄 통에, 본통은 플라스틱 통에 분리해 넣는 선진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버릇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부피를 최소화 해서 버리는 습관도 필요하다. 우리 9천 학생들이 모두 우유팩이나 캔을 최소한 납작하게 해서 버린다면 우리 학교 전체 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판기 옆에 다 쓴 종이컵을 꽂아 버리는 것도 쓰레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병이나 캔 속에 담배재나 쓰레기를 버리면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한 분리와 정확한 수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 변화만이 필요하다. 조금은 귀찮을 지라도 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이윤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황혜연
(이학 1)

학내 주차 및 교통문제 학교, 학생측 노력필요

안전한 인도로 가고 싶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도피하려는 곳이 아닌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말한 것이다.

수원캠퍼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넓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승용차로 등하교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여기 저기 함부로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공대 앞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태연하게 주차하는 사람도 있다. 자대 앞 주차장까지 가는 것이 귀찮고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멀어 서인 것 같다. 차 없이 걸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인도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말인가.

외대에서 산대까지 가는 길이 모험인 듯 싶다. 교내셔틀버스가 10분마다 있는 하지만 제대로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 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불법주차 단속은 스티커 한 장이면 끝나고 차도와 인도의 명확한 구분없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학교 탓만은 아니다. 학생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교통질서 의식,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호
(사회과학부 1)

대학주보 옴부즈맨

한지봉 두가죽은 잘못 아니다.

저번주 대학주보(11월3일자) 1면 교시담에서 서울캠퍼스 동연의 한총련 탈퇴투표에

학생자치조직 입장이 무시하는 기사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 인정치 못해 아쉬워

대한 담당기자의 격정적인 듯한 글을 읽었다. 하지만 칼럼 제목도 그렇고 뒷부분에 있는 기자님의 말은 한번 더 살펴볼까 싶었다.

우리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자치조직들이 있습니다. 동연이나 총학생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학우들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고침

지난 11월 3일자 1130호 총학 선거기사 중 사법대 조세나(영교 96)양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바 없어 삭제하며, 경희 Space기사중 '연극동아리' 동트는 새벽'을 '노래동아리 동트는 새벽'으로 정정하고, 작곡과 학생들의 3등 수상명을 동트는 새벽 박찬우(경영 96)군으로 고칩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가지의 사상과 행동 방식이, 아니 그것만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대학의 문화와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연이나 총학생회의 입장차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인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칼럼에선 단순히 같은 학교니까 생각도 같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다분히 감상적인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기자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쓰셨겠지만 웬지 모르게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김인
(천리안 : com1848)

독자 만화

이경영

(자연과학부 1)



독자 수필

자신감의 축제

남택진

(경제통상학부 1)

이제 가을이라는 농도 겨우익은 놈의 힘에 밀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고향산에 자리잡고 있는 경희 나무들도 그 자태를 잠시 숨기고, 그들의 분신들을 하나 둘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삭막해지기 쉬운 계절에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는 'festival'이라는 행사를 통해 서로의 정을 느끼려 하고 있다.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나의 나태함에 회의를 느끼던 때에 마침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나에게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내겐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어쩌면 그 행사 자체보다 행사를 치르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듯 싶다.

여기서 잠시, 힘들지만 그만큼 남는다는(?) 스폰서 뭉치를 소개하려 한다. 'sponsor' 자칫하면 돈을 구걸하러 다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며, 후원업체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고 나아가 그 업체들과의 유대관계까지 생각하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속한 팔로 꼭 팔린다라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안되더라도 자신감으로 승화시킨다는 대학생들이 아닌가?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도 나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행사가 무사히 치러졌으면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많은 행사를 할 거고, 그들 모두 열심히 활기차게 그들만의 행사를 준비했으면 한다.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랑스런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97.11.1~11.7)

△산업관계연구소(소장, 송성진)	2천만원
△인턴사(대표, 남양아)	1천만원
△라이브(대표, 이충현)	2백만원
-노조창립 10주년 기념사업기금	
△서울은행 경희가속 멤버십동장 기부금('97.2~9월분)	81만2백62원
△기념품 로고사용료 기금('97.2-9월분)	1백63만5백43원

▶경희사랑저금통

△조용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11차분)	6만4천5백60원
△차일영(경희초등학교 교사, 2차분)	6만2천9백30원
△이의영(경희초등학교 교장, 3차분)	8만5백70원
△손백현(대외협력과장, 4차분)	4만7천9백50원
△한진희(이학부 1년)	3만2천5백10원
△김진영(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4만5천5백80원

朔風

잃어버린 여유로움

바하호로 축구의 계절이다. 지난 10월부터 계속된 월드컵 축구예선전을 바라보는 국가적인 관심은 대선의 열기마저 압도할 정도로 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기에도 같은 축구열기는 최근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한줄기 청량제와도 같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재벌기업의 연쇄도산, 주가폭락, 환율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전투구가 그 어느때보다 피부에 와 닿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느끼는 환멸감은 어떤 형태로든 대리만족을 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대일본 전에서의 도쿄 역전승은 급격한 상승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일대격전, 도쿄대첩, 일본열도 침몰...' 등 온갖 섬뜩한 구호가 난무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는 이미 축구는 전쟁의 차원에 이르러 버렸다. 그러나 축구는 어디까지나 스포츠 경기일 뿐이다. 마치 국가의 운명이 걸린듯이 온나라가 들쭉거릴 정도로 지나치게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작된 의미부여는 언제나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

다. 지난 5공시절 권력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3S정책도 결국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회색시킴으로써 했음이 아니었던가.

지난 주 서울에서 있었던 한 일전은 그러한 광기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욕구를 축구가 대신한다는 심리학적 분석에서부터 경기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는 해석에 이르기까지 이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에 머무를 수 없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간 흔적이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광기를 가장 앞서 이끌었던 것은 물론 언론이다. 경기 개시 일주일 전부터 적지 않은 지면과 전파를 할애하면서 온국민의 관심을 한, 일전으로 몰아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나 3개 중공과 방송사들의 무절제한 경쟁은 점입가경이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3개 채널에서 동일한 경기장면을 내보내고 있던 것은 소위 '패거리 언론'의 단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패닉 상태를 언론이 때워주는 가에 있다. 무책임한 선동 뒤에 나

타나는 정신적인 공황은 결코 적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넌즈시 우리의 고의적인 패배쪽으로 몰고가려는 심산인가보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언론이 조장한 비이성적인 흥분상태에서 기인한다. 남미 어느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축구전쟁도 기실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보아도 국민의 흥분상태를 이성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던 언론의 선동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숙적(원수?)' 일본과 카자흐스탄이 죽어라 축구전쟁을 하고 있다. 또 내일은 국가의 운명을 한몸에 걸어지고 있는 국가대표팀이 아랍의 모래 땅 위에서 '성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축구를 축구로 볼 수 있는 이성과 패배를 출가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의 부재.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이성은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듯아들이다.

(賢)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안·취재제보가 있으시면 학내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 본사 편집실 천리안(ID : Khunews)



10월 1일 유공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 유공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화학에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 에너지·화학 - SK가 책임지겠습니다

舊사명	新사명
유공해운	SK해운
유공상사	SK에너지판매
유공가스	SK가스
유공석유케미칼	SK석유케미칼

★기획제작 : 유공 홍보실 담당 안병진 / 재일기획 / CD모세전 / CD최진, 홍요한 / CW이상은 / AE백성기, 이소복

한국의 힘 -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